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11월 1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정신 못차린 유성기업!

대표자 교섭에 빈손으로 나와



유성기업 사태해결 의지 있나?

11월 9일(금)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표자 교섭이 있었던 날이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아들 유현석 사장이 직접 나오는 교섭이기도 하고, 사측이 이번에는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빈손으로 교섭에 나왔다.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이라고 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어용노조와 차별이 생겨서 안된다고 한다. 임금인상은 어용노조가 합의한 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겠다고 한다. 노조파괴 8년째인데 도대체 유성기업은 변한 것이 없다. 이전 교섭에서 했던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투쟁은 더 강해진다!

오늘로 유성기업 본사 농성 29일 차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전면파업도 29일차다. 한달을 통째로 전면파업 중이다. 상황이 길어지면 투쟁동력이 떨어질만도 한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더 결의를 높이고 있다. 생계대책으로 특별조합비(해고자 동지들이 복직하며 납부한 투쟁기금)에서 조합원 1인당 100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했다. 그동안 해고자 동지들은 조합원 동지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투쟁해서 복직했고, 이제는 해고자 동지들이 마련한 특별조합비로 조합원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유성

지회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연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부는 매주 수요일 유성기업 서울 본사 앞 촛불문화제에 결합하고 있고, 조합원 1인당 1만원 투쟁기금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충북분부는 조합원 1인당 1천원, 간부 1인당 1만원을 결의하고 2천2백만원 가량을 모아 지회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도 1천만원의 투쟁기금을 모았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유성 농성장을 방문해 투쟁기금을 전해주고 있다. 절대 노조파괴에 굴하지 말고 동지들을 믿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자는 의미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지부, 지역 동지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있어 서울 곳곳, 영동공장, 아산공장을 누비며 투쟁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서울에서는 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있고, 영동과 아산공장에서는 오체투지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부 총파업의 칼날이 유성기업으로 향한다!

유성기업은 이번 교섭 파행으로 최악의 악수를 뒀다. 지부는 유성기업이 사태해결이 나서지 않으면 지부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뿐만 아니라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아직 지부교섭이 끝나지 않아 파업권이 살아있는 상황에 유성기업은 기름을 부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유성기업에 있다.